

[보도자료] 쿠팡 마켓플레이스, 영세·중소 판매자 위한 지원 확대

2020. 5. 15.

- ‘즉시 정산 서비스’ 선보여 판매대금 최대 90%까지 저렴한 금리로 선정산
-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약정부터 선정산까지 원스톱 처리
- 인공지능 코칭 서비스, 스토어 플러스 등 판매자 성장 위한 지원 이어가

2020. 5. 15. 서울 — 쿠팡이 새로운 대금 지급 서비스를 선보이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 판매자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선다. 쿠팡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영세·중소 판매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즉시 정산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즉시 정산 서비스’는 온라인 판매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결제 대금을 정산일 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지급 받는 서비스다. 늘어난 고객 주문에 상품 재고를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판매자,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여유자금이 필요한 판매자, 직원 월급 날과 거래처 대금 지급일이 맞물려 급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판매자 등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는 넓히고 지급 절차는 간소화했다. ‘즉시 정산 서비스’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중 KB국민은행이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라면 개인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 빠르면 다음날 판매대금의 최대 90%를 정산 받을 수 있으며, 하루 0.013%(연 4.8%)의 저렴한 금리로 판매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서비스 신청도 간단하다. KB국민은행 사업자용 계좌가 있다면 영업점 방문없이 기업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초 서비스 신청 시에는 가입 승인을 위한 3~5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티파니 곤잘레스 시니어 디렉터는 “즉시 정산 서비스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판매자, 예상 못한 상황에 급히 현금이 필요한 판매자 등 다양한 영세, 중소 판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 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관리센터에서는 인공지능(AI) 코칭 서비스를 통해 상품별 판매 현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맞춤 팁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또 판매자가 무료로 개설할 수 있는 샵인샵 형태의 ‘스토어 플러스’는 브랜드 홍보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로 연결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쿠팡 셀러스(<https://sellers.coup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